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WSJ: 앞으로 연방 부채 더 커진다
- WSJ: 1월 연준 의사록 “금리 인하 필요성 못 느꼈다”
- WSJ: 12월 미 무역적자 크게 늘어
- WSJ: 지난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, 크게 하락...2만 6천 건

[미국 금융]

- WSJ: 미 이란 리스크로 오일 상승...증시 하락세
- WSJ: 미 국채가 하락...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연준 의사록 발표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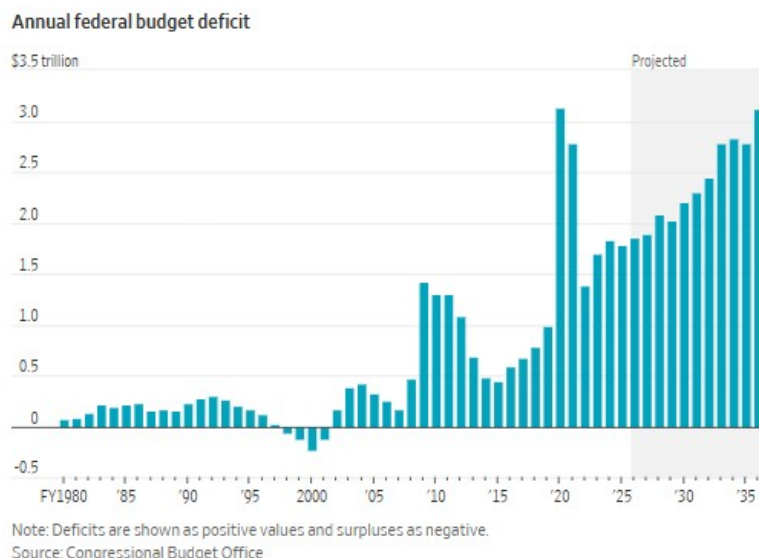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미 톱 변호사 수임료 천정부지... 시간당 3천4백 불
- Bloomberg: 아마존, 월마트 매출 앞서 세계 1등 판매 회사로
- WSJ: 월마트 매출 성장...그로서리와 온라인 매출이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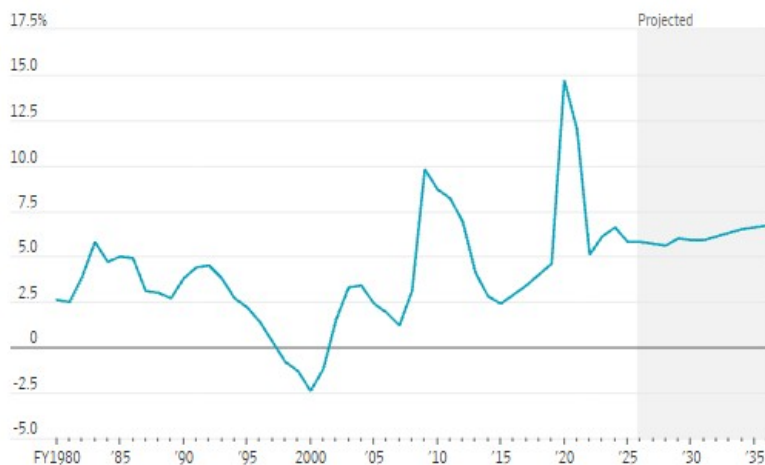
[미국 경제]

WSJ: Why the Federal Deficit Is Projected to Surge, in Five Charts 앞으로 연방 부채 더 커진다

- 연방의회 예산처(CBO)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누적 부채는 미 GDP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.
- 예산처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누적 재정적자가 2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당초 전망보다 약 1조 4천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.
- 관세 수입은 작년 트럼프의 세제법(one big, beautiful)’으로 재정 부채의 일 부만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.
- 2036회계연도까지 미국의 매년 연간 재정적자가 점차 3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에 대규모 지출했을 때 도달한 재정 적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.
- 2036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는 GDP의 6.7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2025년의 당해 연도5.8%에서 상승한 수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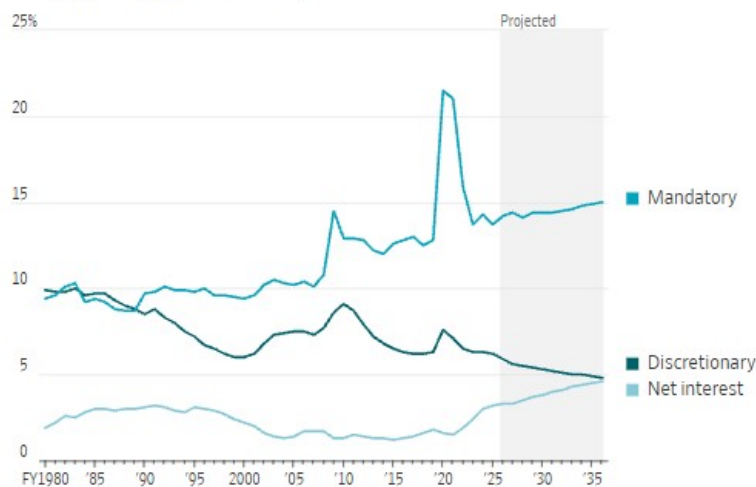


Annual deficit as a percentage of GDP



Note: Deficits are shown as positive values and surpluses as negative.
Source: Congressional Budget Office

Outlays, by category, as a percentage of GDP



Source: Congressional Budget Office

기사

WSJ: Fed Minutes Reveal Little Appetite for Rate Cuts 1월 연준 의사록 “금리 인하 필요성 못 느꼈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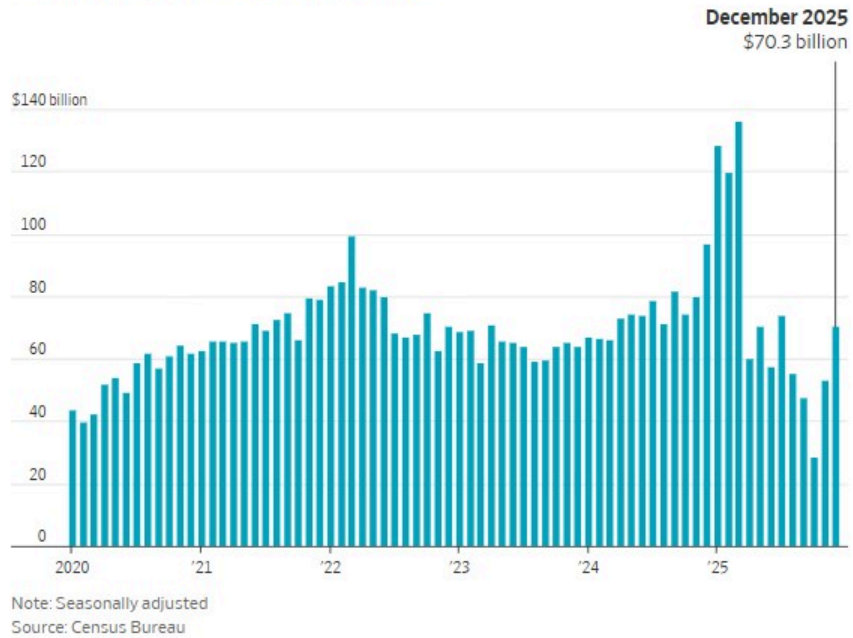
- 1월 연준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이에 따르면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대부분은 인플레이가 연준의 목표치 2%에 벗어난다고 보았다. 간단히 말해 금리 인하하는데 수개월이 걸릴수도 있다고 보았다.
- 연준 관리들은 금리 관련해 보다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기 원했으며 일부 관리들은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같이 열어두고, 어느 쪽이 더 유력하다고 단정 짓지 않은 상황이었다.
- 한편 1월 정례 회의에서 2명만이 금리 인하를 지지했으며 나머지는 동결에 표를 던졌다.

기사

WSJ: U.S. Trade Deficit Surged in December 12월 미 무역적자 크게 늘어

- 연방 상무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미 무역흑자는 11월 5백30억 불에서 7백3억 달러로 많이 증가했다.
- 특히 적자가 늘어난 것은 미국의 금 수출이 71억 달러나 줄어든 것이 크게 작용했다.
-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는 전년도의 9천35억 달러보다 약간 줄어든 9백15억 달러를 기록했다.

U.S. trade deficit, goods and services, monthly



기사

WSJ: US Jobless Claims Drop by the Most Since November to 206,000 지난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, 크게 하락...2만 6천 건

- 연방 노동국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2월 14일 끝나는 주의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 줄어든 20만 6천 건으로 나타났다. 이는 지난 11월 이래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.
- 실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 아래로 떨어진 월별 건수는 지난해 몇 차례뿐이었다. 해고가 줄어들고 있는 희소식이다.
- 한편 전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백87만 건으로 올해 1월 초 이래 가장 크게 증가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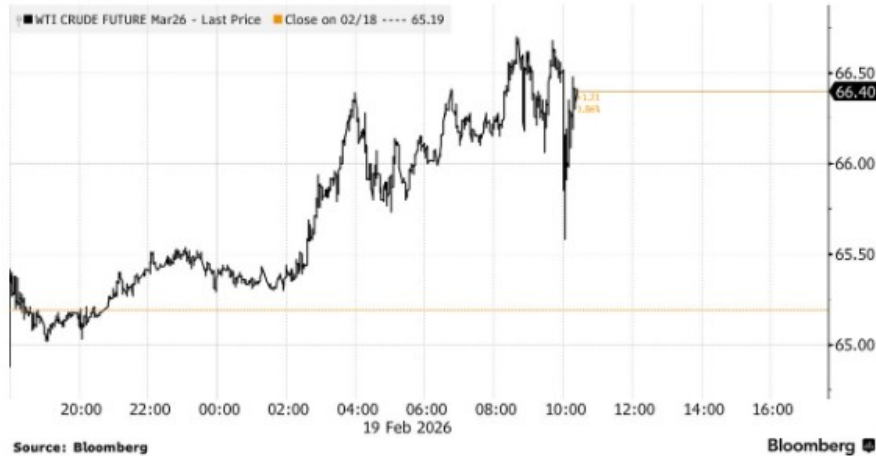
[미국 금융]

WSJ: Stocks Fall as US-Iran Worries Drive Oil Higher 미 이란 리스크로 오일 상승...증시 하락세

- 미 이란 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오일가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주식은 하락세를 보인다. 인플레이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미 국채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.
- 오늘 목요일 오전 11시 45분 현재 증시 하락세는 약간 완화돼 나스닥은 0.16% 하락 중이며 S&P 500은 0.11%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.
- 월마트는 미국의 매출 증가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.

- 지정학적 리스크로 서부 텍사스 중질류는 66달러를 웃돌았다. 달러도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- 한편 미디어 Axios는 어제 수요일, 중동에서 미국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 곧 시작될 수 있으며,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.

Oil Rallies on US-Iran Risks



기사

WSJ: US Treasuries Decline as Fed Minutes Temper Rate-Cut Outlook 미 국채가 하락...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연준 의사록 발표로

- 미 국채 가격이 이를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지난 1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록이 발표되고 미 경제가 견조한 지표를 보이면서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.
- 국채 금리는 장·단기물 관계없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금리는 3.46%로 주간 단위로 가장 높았으며 10년물 국채도 4.08%를 기록했다.
- 한편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가 커졌으며 여러명의 관리는 연준 목표 2%를 계속 웃돌 때 오히려 금리 인상 필요성도 제안했다는 것이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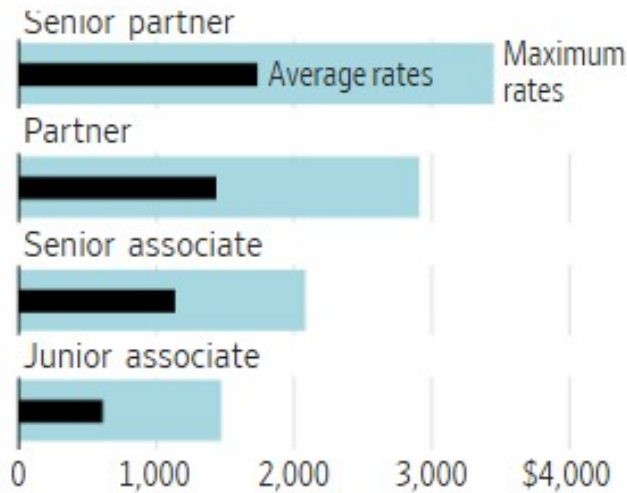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Top Lawyers' Fees Have Skyrocketed. Be Prepared to Pay \$3,400 an Hour.

미 톱 변호사 수임료 천정부지... 시간당 3천4백 불

- 톱 미 변호사의 수임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. 일부 파트너의 경우는 시간당 3천 불을 받고, 특별한 전문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6천 불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.
- 회사들은 변호 관련된 업무를 AI에 맡기면서 변호 비용을 절감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톱 변호사들의 여전히 높은 수임료를 받고 있다.
- 미 대형 50개 로펌의 파트너 수임료는 작년에 16% 상승했는데 일부 로펌의 수임료는 시간당 3천불을 상회했다.

Standard hourly rates at top 50 U.S. law firms, by revenue



Source: Pursuit

[기사](#)

Bloomberg: Amazon Dethrones Walmart as World's Biggest Company by Sales

아마존, 월마트 매출 앞서 세계 1등 판매 회사로

- 아마존이 매출로 월마트를 능가해 글로벌 매출 1위 기업으로 공식 자리매김했다.
- 올해 1월 말까지 지난 12개월까지 기간을 비교하면 아마존의 매출은 7천1백70억 달러로 월마트의 7천1백32억 달러를 앞섰다.
- 아마존의 이 같은 비교 우위의 원동력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웹서비스의 덕분인데 이로 인해 매출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.

[기사](#)

WSJ: Walmart Sales Climb, Driven by Grocery and Online Gains

월마트 매출 성장...그로서리와 온라인 매출이 주도

- 월마트의 분기 매출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 미국 매출의 경우 4.6%, 온라인 매출은 27% 상승했다.
- 수익 마진도 미국 매출에서 늘어났는데 그로서리, 멤버십, 광고 판매 덕분이었다.
- 물론 연간으로 비교했을 때는 아마존에 의해 미국 최대 소매 업체의 지위를 잃었다.

[기사](#)